

지역 주민의 한방 의료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 아산시를 중심으로 -

김경신¹·엄지태¹·안종민²·김소희²·최미영³·김병수¹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¹·아산시 보건소²·충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³

A Study on the Customer's Use of and Satisfaction with oriental medical services by local resident

- Focused on Asan City -

Kim, Kyoung-Shin¹·Um, Ji-Tae¹·An, Jong-Min²·Kim, So-Hi²·Choi, Mi-Young³·Kim, Byoung-Soo¹ *

¹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²Asan Health Center

³Department of Social Welfare, Joongb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current status of the oriental medical service satisfaction and needs that the people who utilizing the medical services and suggest the primary factors of consumption and satisfaction in the oriental medical services the city of Asan. We analyze the use and satisfaction of the customers for the oriental medical services with using the questionnaires to the citizens of Asan.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hat the participants of the survey was 556 people of Asan City.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August 15th, 2009 to September 15th, 2009(during 30 days) with disease index that specially developed as oriental medicin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556 people were responded the survey. 471(84.7%) of respondents were who have ever been treated with oriental medical service and 85(15.3%) of respondents were who have never been treated with oriental medical service. 25(4.7%) of respondents were who doesn't believe the treat of oriental medicine. 76(13.6%) of respondents preferred the oriental medical service. 413(50.1%) of respondents preferred the acupuncture and moxa treatment and 280(33.9%) preferred the herbs. 227(39.6%) of respondents were treated for musculoskeletal disorders

The conclusion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t was found that the people who prefer to use oriental medical services usually have one or more of these following diseases: musculoskeletal disorders, paralysis, unclear diseases or injuries. Secondly, the main factor of customers' satisfaction with oriental medical services lies in the age of the user. The more aged, the more high in customers' satisfaction with oriental medical services was found through the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develop marketing strategies for oriental medical institutions in the city of Asan.

Key Words: oriental medicine, customers' use and satisfaction, oriental medical services, survey

I. 서론

한방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 거주 주민의 한방 의료에 대한 인식과 경험 만족도 등의 문제를 총괄적으로 파악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주민의 필요에 대하여 항상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사회진단을 통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의 문제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1980년대 이후 의료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정부는 의료 책정을 추진하였으나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의료기관의 도시집중에 따른 농촌지역주민들의 상대적인 의료서비스 약화와 의료기관간의 과다경쟁에 따른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¹⁾. 특히, 한방 진료의 경우 만족도 및 인식도가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한 양방의 의료간의 역할 분담의 미비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선택에 어려움이 있고, 중복진료로 인해 의료비의 지출이 늘어나며, 부적절한 치료가 동반되기도 한다. 따라서 적절한 의료 정책의 실시는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방의료의 효율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요구 되고 있다²⁾.

본 연구는 한방 의료 서비스 이용자들의 선호 형태와 속성을 통하여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진단은 지역의 정의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료 서비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규명하고 그러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평가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한다. 이에 따라 한방 서비스에 대해서 실제 한방치료 이용도나 선호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한방 의료 서비스의 지역 사회 진단을 위하여 한방 보건의료서비스의 문제와 질환 분포 분석을

실시하였다.

II. 본론

1. 연구방법

1) 지역조사 설계

(1) 조사대상

2009년 아산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의 표본조사 대상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전체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표본 추출 하였으며, 그 대상 인구수는 556명으로 하였다.

(2) 조사 기관과 방법

(1) 조사 기간

본 한방 지역사회조사는 2009년 8월 15일 ~ 9월 15일 까지 30일간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방법은 교육을 받은 설문 조사요원이 면접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 방법

설문지는 보건의식 행태부분과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에서 개발한 한방 질환 지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3) 조사 내용

설문지는 단일 종류로 인구·사회학적 설문 및 한방 의료기관 이용, 한방 질환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① 한방선호도

② 질환관심도(한방질환 위주)

③ 일반 인구·사회학적 질문

(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작업과 오류검토 작업을 한 후 SPSS 12.0 Package를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으며,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2. 조사 결과

1) 인구 사회학적 분석

* 교신저자 : 김병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Tel : 042-280-2616 E-mail : kbsso25@dju.kr

투고일 : 2010년 7월26일 게재확정일 : 2010년 8월11일.

1) 최용환.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선호형태에 관한 분석. 충북개발연구원. 12(2). 213-234. 2001.

2) 최윤정, 김장현. 일부 한방병원 내원자들의 소아 한방 치료에 대한 인식 및 이용에 관한 조사 연구. 한의정보학회지. 1(1):1-24. 1995.

(1) 조사대상자의 인구분포

2009년 아산시 전체 인구수는 259,654명으로 세대수는 104,017세대이며 17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인 7,301명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남자는 128,422명 여자는 123,931명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의 표본 조사 대상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556명을 조사대상으로 표본 추출 하였다. 전체 인구수의 0.21%를 조사대상으로 표본 추출 하였다.

전체 조사인구는 온양1-6동에서 29.7%, 도고면에서 34%, 둔포면에서 2.7%, 배방면에서 8.8%에서, 선장면에서 6.1%, 송악면에서 3.6%, 신창면에서 9.0%, 염치읍에서 6.7%, 영인면에서 4.9%, 음봉면에서 15.6%, 인주면에서 6.8%로 구성하였다.

Table 1. 아산시 인구 분포3)

구분	총계	주민등록인구			세대수
		계	남	여	
합 계	259654	252353	128422	123931	104017
염치읍	7983	7806	4103	3703	3330
배방읍	48005	47162	23842	23320	19113
송악면	3638	3600	1865	1735	1574
탕정면	19436	18677	9022	9655	10428
음봉면	17024	16296	8911	7385	7428
둔포면	11272	10401	5495	4906	4278
영인면	7274	6708	3522	3186	2703
인주면	7672	7329	3977	3352	3300
선장면	4361	4111	2063	2048	1789
도고면	5428	5312	2734	2578	2251
신창면	20757	19483	10131	9352	7962
온양1동	7500	7179	3587	3592	3160
온양2동	9443	9412	4696	4716	3821
온양3동	27680	27408	13620	13788	10092
온양4동	20737	20404	10399	10005	7656
온양5동	16082	15922	8062	7860	5516
온양6동	25362	25143	12393	12750	9616

3) 충청남도 아산시 통계 자료(2009. 8)

Table 2. 거주지별 조사 인구

거주지별	빈도	%
온양1-6동	165	29.7
도고면	34	6.1
둔포면	15	2.7
배방읍	49	8.8
선장면	34	6.1
송악면	20	3.6
신창면	50	9.0
염치읍	37	6.7
영인면	27	4.9
음봉면	87	15.6
인주면	38	6.8
합계	556	100.0

(2) 조사대상자의 남녀 성비

표본 추출된 조사대상의 인구수는 남성은 197명 (35.4%), 여성은 359명(64.6%)으로 지역에 따른 성비 인구비례를 고려하여 표본 추출 하였다.

Table 3. 조사대상자의 남녀 성비

성별	빈도	퍼센트
남성	197	35.4
여성	359	64.6
합계	556	100.0

(3)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별 구성

조사대상자 중 20대는 29명 5.2%, 30대는 72명 12.9%, 40대는 109명 19.6%, 50대는 87명 15.6%, 60대는 110명 19.8%, 70대 이상은 149명 26.8%로 조사되었다.

Table 4.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별 구성

연령 분포	빈도	퍼센트
20대	29	5.2
30대	72	12.9
40대	109	19.6
50대	87	15.6
60대	110	19.8
70대 이상	149	26.8
합계	556	100.0

2) 한방 의료 서비스 분석

(1) 한방 치료 경험

조사대상자의 한방 치료 유·무에 대한 응답에는 한방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471명 84.7%, 한방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85명 15.3%로 치료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Table 5. 한방치료경험

한방치료받은경험	빈도	퍼센트
예	471	84.7
아니오	85	15.3
합계	556	100.0

① 성비에 따른 한방 치료 경험

전체 남성 197명 중 한방 치료를 받아 본 남성은 149명 75.6%, 전체 여성 359명 중 한방 치료를 받아 본 여성은 322명 89.7%로 여성의 한방치료 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6. 성비에 따른 한방 치료 경험

성별	한방치료받은적	한방치료유무		전체
		예	아니오	
남성	빈도	149	48	197
	성별 중 %	75.6%	24.4%	100.0%
여성	빈도	322	37	359
	성별 중 %	89.7%	10.3%	100.0%
전체	빈도	471	85	556
	성별 중 %	84.7%	15.3%	100.0%

② 연령대에 따른 한방 치료 경험

조사대상자의 한방치료 받은 경험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 134명 89.9%, '60대' 93명 84.5%, '40대' 91명 83.5%, '50대' 73명 83.9%, '30대' 63명 87.5%, '20대' 17명 58.6%로 모든 연령대에서 한방 치료를 받지 않은 대상자보다 한방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의 비율이 높았으며,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그 비율이 점차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Table 7. 연령대에 따른 한방 치료 경험

연령별	한방치료받은적	한방치료받은적		전체
		예	아니오	
20대	빈도	17	12	29
	연령별 중 %	58.6%	41.4%	100.0%
30대	빈도	63	9	72
	연령별 중 %	87.5%	12.5%	100.0%
40대	빈도	91	18	109
	연령별 중 %	83.5%	16.5%	100.0%
50대	빈도	73	14	87
	연령별 중 %	83.9%	16.1%	100.0%
60대	빈도	93	17	110
	연령별 중 %	84.5%	15.5%	100.0%
70대이상	빈도	134	15	149
	연령별 중 %	89.9%	10.1%	100.0%
전체	빈도	471	85	556
	연령별 중 %	84.7%	15.3%	100.0%

(2) 한방 치료가 없던 이유

한방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 대상자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한방치료 효과에 대한 의문 때문에' 25명 4.5%, '진료비 부담 때문에', '마땅한 한방 의료 기관이 없어서'가 각각 13명으로 2.3%, '침이나 한약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7명 1.3%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8. 연령대에 따른 한방 치료 경험

치료받아본적없는이유	빈도	퍼센트
한방치료 효과에 대한 의문때문에	25	4.5
침이나 한약에 대한 부작용때문에	7	1.3
진료비 부담때문에	13	2.3
마땅한 한방의료기관이 없어서	13	2.3
기타	27	4.9
무응답	471	84.7
합계	556	100.0

(3) 한방 / 양방 진료 선택 이유

한방과 양방의 진료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변이야기와 그동안의 관습으로 한곳을 선택 한다' 268명 48.2%, '판단하지 않고 편리한 가까운 곳을 선택' 126명 22.7%, '가까운 친구나 친지가 근무하는 믿음직한 곳을 선택' 93

명 16.7%, '인터넷이나 의료광고 등을 검색하여 한곳을 선택' 25명 4.5% 순으로 나타내었다.

Table 9. 한방 / 양방 진료 선택 기준

한/양방선택기준	빈도	퍼센트
주변이야기와 그동안의 관습으로 한곳을 선택한다	268	48.2
인터넷이나 의료광고 등을 검색하여 한곳을 선택	25	4.5
가까운친구나 친지가 근무하는 믿음직한 곳을 선택	93	16.7
판단하지않고 편리한 가까운 곳을 선택	126	22.7
기타	20	3.6
무응답	24	4.3
합계	556	100.0

① 성별에 따른 한/양방 진료 선택 이유

조사대상자들의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남성은 '주변이야기와 그동안의 관습으로 한곳을 선택' 94명 50.5% '판단하지 않고 편리한 가까운 곳을 선택' 44명 23.7% 의 비율이 높았으며, 여성 또한 '주변이야기와 그동안의 관습으로 한곳을 선택' 174명 50.3%, '판단하지 않고 편리한 가까운 곳을 선택' 82명 23.7%로 남성과 여성이 한방과 양방을 선택하는 기준에는 차이가 없음이 관찰되었다.

Table 10. 성별에 따른 한/양방 진료 선택 이유

한/양방 선택기준	한방/양방 선택기준						전체
	인터넷 주변이야기와 그동안의 관습으로 한곳을 선택한다	인터넷이나 의료광고 등을 검색하여 한곳을 선택	가까운 친구나 친지가 근무하는 믿음직한 곳을 선택	판단하지 않고 편리한 가까운 곳을 선택	기타	무응답	
남성	빈도	94	11	30	44	7	186
	성별 중%	50.5%	5.9%	16.1%	23.7%	3.8%	100.0%
여성	빈도	174	14	63	82	13	346
	성별 중%	50.3%	4.0%	18.2%	23.7%	3.8%	100.0%
전체	빈도	268	25	93	126	20	532
	성별 중%	50.4%	4.7%	17.5%	23.7%	3.8%	100.0%

② 연령별에 따른 한/양방 진료 선택 이유

조사대상자들의 한방과 양방의 선택 기준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주변이야기와 그동안의 관습으로 한곳을 선택' 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20대' 12명 42.9%, '30대' 32명 48.5%, '40대' 57명 53.3%, '50대' 47명 55.3%, '60대' 53명 50.5%, '70대 이상' 67명, 47.5%로 모든 연령대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연령에 따른 한/양방 진료 선택 이유

한/양방 선택기준	한/양방선택기준						전체
	주변이야기와 그동안의 관습으로 한곳을 선택한다	인터넷이나 의료광고 등을 검색하여 한곳을 선택	가까운 친구나 친지가 근무하는 믿음직한 곳을 선택	판단하지 않고 편리한 가까운 곳을 선택	기타	무응답	
20대	빈도	12	4	5	5	2	28
	연령별 중%	42.9%	14.3%	17.9%	17.9%	7.1%	100.0%
30대	빈도	32	3	15	11	5	66
	연령별 중%	48.5%	4.5%	22.7%	16.7%	7.6%	100.0%
40대	빈도	57	6	23	17	4	107
	연령별 중%	53.3%	5.6%	21.5%	15.9%	3.7%	100.0%
50대	빈도	47	3	16	16	3	85
	연령별 중%	55.3%	3.5%	18.8%	18.8%	3.5%	100.0%
60대	빈도	53	7	15	28	2	100.0%
	연령별 중%	50.5%	6.7%	14.3%	26.7%	1.9%	100.0%
70대 이상	빈도	67	2	19	49	4	141
	연령별 중%	47.5%	1.4%	13.5%	34.8%	2.8%	100.0%
전체	빈도	268	25	93	126	20	532
	연령별 중%	50.4%	4.7%	17.5%	23.7%	3.8%	100.0%

(4) 의료 서비스 선호 기관

선호하는 의료 기관을 살펴보면 '종합병원' 215명 38.7%, '보건소' 109명 19.6%, '양방의원' 106명, 19.1 %, '한의원' 43명 7.7%, '한방병원' 33명 5.9%, '약국' 19명, 3.4%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2. 의료 서비스 선호 기관

선호하는의료기관	빈도	퍼센트
약국	19	3.4
양방의원	106	19.1
종합병원	215	38.7
한의원	43	7.7
한방병원	33	5.9
보건소	109	19.6
기타	7	1.3
무응답	24	4.3
합계	556	100.0

① 성별에 따른 의료 서비스 선호 기관

남성 89명 47.1%, 여성 126명 36.7% 로 ‘종합병원’을 가장 선호 하고, 남성은 ‘양방의원’ 38명 20.1%, ‘보건소’ 29명 15.3%, ‘한의원’, ‘한방병원’ 각 12명 6.3%, ‘약국’ 9명 4.8% 순으로 나타나고, 여성은 ‘보건소’ 80명 23.3%, ‘양방의원’ 68명 19.8%, ‘한의원’ 31명 9.0%, ‘한방병원’ 21명 6.1%, ‘약국’ 10명 2.9% 로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3. 성별에 따른 의료 서비스 선호 기관

	선호의료기관	선호하는의료기관							전체
		약국	양방의원	종합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보건소	기타	
남성	빈도	9	38	89	12	12	29	0	189
	성별 중 %	4.8%	20.1%	47.1%	6.3%	6.3%	15.3%	.0%	100.0%
여성	빈도	10	68	126	31	21	80	7	343
	성별 중 %	2.9%	19.8%	36.7%	9.0%	6.1%	23.3%	2.0%	100.0%
전체	빈도	19	106	215	43	33	109	7	532
	성별 중 %	3.6%	19.9%	40.4%	8.1%	6.2%	20.5%	1.3%	100.0%

② 성별에 따른 의료 서비스 선호 기관

연령대별로 선호의료 기관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70대 이상에서는 ‘보건소’ 64명 45.4%, ‘종합병원’ 35명 24.8%, ‘양방의원’ 23명 16.3%, ‘한의원’ 8명 5.7%, ‘한방병원’ 5명 3.5%, ‘약국’ 2명 1.4% 순으로 나타내었고, 70대 이상을 제외한 각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종합병원’ 이었으며, 20대 14명 50.0%, 30대 31명 46.3%, 40대 52명 48.6%, 50대 44명, 53.05%, 60대 39명 36.8%로 조사되었다.

Table 14. 성별에 따른 의료 서비스 선호 기관

선호의료기관	연령대	선호하는의료기관							전체
		약국	양방의원	종합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보건소	기타	
20대	빈도	1	8	14	3	0	2	0	28
	연령별 중 %	3.6%	28.6%	50.0%	10.7%	.0%	7.1%	.0%	100.0%
30대	빈도	3	18	31	7	5	2	1	67
	연령별 중 %	4.5%	26.9%	46.3%	10.4%	7.5%	3.0%	1.5%	100.0%
40대	빈도	9	25	52	9	7	5	0	107
	연령별 중 %	8.4%	23.4%	48.6%	8.4%	6.5%	4.7%	.0%	100.0%
50대	빈도	2	13	44	8	6	8	2	83
	연령별 중 %	2.4%	15.7%	53.0%	9.6%	7.2%	9.6%	2.4%	100.0%
60대	빈도	2	19	39	8	10	28	0	106
	연령별 중 %	1.9%	17.9%	36.8%	7.5%	9.4%	26.4%	.0%	100.0%
70대 이상	빈도	2	23	35	8	5	64	4	141
	연령별 중 %	1.4%	16.3%	24.8%	5.7%	3.5%	45.4%	2.8%	100.0%
전체	빈도	19	106	215	43	33	109	7	532
	연령별 중 %	3.6%	19.9%	40.4%	8.1%	6.2%	20.5%	1.3%	100.0%

(5) 한방 선택 시 선호 의료 기관

한방 치료를 원할 때 어떤 한방 의료기관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조사 대상자중 264명 47.5%가 ‘한의원’을 선호 한다고 응답하였고, ‘한방병원’ 132명 23.7%, ‘보건소’ 95명 17.1%, ‘한약방’ 8명 1.4%, ‘한약국’ 7명 1.3% 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5. 한방 선택시 선호 의료 기관

한방선호의료기관	빈도	퍼센트
한의원	264	47.5
한방병원	132	23.7
보건소	95	17.1
한약방	8	1.4
한약국	7	1.3
기타	27	4.9
무응답	23	4.1
합계	556	100.0

(6) 한방 치료 경험 유형

한방 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치료 방법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에는 ‘침, 뜸’ 413명 50.1%, ‘한약제제’ 280명 33.9%, ‘진단기기’ 55

명 6.7%, ‘추나, 체질’ 53명 6.4%, 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6. 한방 치료 경험 유형

한방 치료 방법	응답	
	N	퍼센트
한약제제	280	33.9%
침뜸	413	50.1%
진단기기	55	6.7%
추나체질	53	6.4%
기타	24	2.9%
합계	825	100.0%

① 성별에 따른 한방 치료 경험 유형

남성과 여성 모두 ‘침, 뜸’ 각 127명 75.1%, 286명 84.4%, ‘한방제제’ 각 88명 52.1%, 192명 56.6%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다음으로는 남성은 ‘추나, 체질’ 19명 11.2%, ‘진단기기’ 17명 10.1% 여성은 ‘진단기기’ 38명 11.2%, ‘추나, 체질’ 34명 10.0%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7. 성별에 따른 한방 치료 경험 유형

한방 치료법	한방 치료법					합계
	한약제제	침뜸	진단기기	추나체질	기타	
남성	88	127	17	19	11	169
성별	52.1%	75.1%	10.1%	11.2%	6.5%	
여성	192	286	38	34	13	339
성별	56.6%	84.4%	11.2%	10.0%	3.8%	
합계	280	413	55	53	24	508

(7) 한방 선택시 선호 치료 유형

한방 치료를 받는다면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할지에 대한 응답에는 ‘침, 뜸’ 353명 37.8%, ‘한약제제’ 247명 26.4%, ‘추나, 체질’ 159명 17.0%, ‘진단기기’ 151명 16.1% 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8. 한방 선택시 선호 치료 유형

받고싶은한방치료	응답	
	N	퍼센트
한약제제	247	26.4%
침뜸	353	37.8%
진단기기	151	16.1%
추나체질	159	17.0%
기타	25	2.7%
합계	935	100.0%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한방 치료를 받는다면 ‘침, 뜸’, ‘한약제제’, ‘추나, 체질’, ‘진단기기’ 순으로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8) 한방 치료 경험 질환

한방으로 치료 했던 질환을 살펴보면 ‘노인 퇴행성 질환’ 227명 39.6%, ‘성인 질환’ 105명 18.3%, ‘여성 질환’ 59명 10.3%, ‘소아/청소년/정신과 질환’의 순으로 나타났고, 만성질환으로 이환되어 있는 노년층에 경우 꾸준한 치료를 위하여 ‘노인 퇴행성 질환’의 비율이 높았다.

Table 19. 한방 치료 경험 질환

한방치료했던질환	응답	
	N	퍼센트
노인퇴행성 질환	227	39.6%
성인 질환	105	18.3%
여성 질환	59	10.3%
소아/청소년/정신과 질환	16	2.8%
기타	166	29.0%
합계	573	100.0%

① 성별에 따른 한방 치료 경험 질환

Table 20. 성별에 따른 한방 치료 경험 질환

한방치료질환	한방 질환 관심도					합계
	노인퇴행성 질환	성인 질환	여성 질환	소아/청소년/정신과 질환	기타	
남성	73	47	3	5	64	165
성별	44.2%	28.5%	1.8%	3.0%	38.8%	
여성	154	58	56	11	102	322
성별	47.8%	18.0%	17.4%	3.4%	31.7%	
합계	227	105	59	16	166	487

(9) 한방 선택 시 질환 유형

‘어떤 질환에 대해서 관리 및 치료를 받기를 희망 하는가’ 에 ‘요통’ 336명 23.7%, ‘중풍’ 181명 12.8%, ‘고혈압’ 160명 11.3%, ‘소화기’ 148명 10.4%, ‘화병/정신’ 121명 8.5%, ‘암’, ‘당뇨병’ 104명 7.3%, ‘감기천식’ 90명 6.4%, ‘치매/신경’ 80명 5.6%, ‘심장병’ 56명 4.0%, ‘사고손상’ 18명 1.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은 ‘요통’ 111명 56.9%, ‘중풍’ 75명 38.5%, 여성은 ‘요통’ 225명 64.5%, ‘중풍’ 106명 30.4% 로 남성과 여성 모두 요통과 중풍질환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요통’, ‘중풍’ 다음으로는 ‘고혈압’, ‘소화기’, ‘암’, ‘감기천식’, ‘화병/정신’, ‘당뇨병’, ‘치매신경’, ‘심장병’, ‘사고손상’ 순으로 여성은 ‘요통’, ‘중풍’ 다음으로는 ‘소화기’, ‘고혈압’, ‘화병정신’, ‘당뇨병’, ‘암’, ‘감기천식’, ‘치매신경’, ‘심장병’, ‘사고손상’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1. 한방 선택시 질환 유형

질환관심도	응답	
	N	퍼센트
암	104	7.3%
고혈압	160	11.3%
중풍	181	12.8%
당뇨병	104	7.3%
요통	336	23.7%
심장병	56	4.0%
감기천식	90	6.4%
소화기	148	10.4%
치매/신경	80	5.6%
화병/정신	121	8.5%
사고손상	18	1.3%
기타	19	1.3%
합계	1417	100.0%

III. 결 론

조사대상자의 한방 치료 유·무에 대한 응답에는 한방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84.7%, 한방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15.3%로 조사 되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58.6%로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그 비율이 점차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

한방 치료가 없던 이유에서는 ‘한방치료 효과에 대한 의문 때문에’ 4.5%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지만, 한방과 양방의 진료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변이야기와 그동안의 관습으로 한곳을 선택 한다’ 48.2%로 전문적인 판단보다는 통념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선호하는 의료 기관을 살펴보면 ‘종합병원’ 38.7%, ‘보건소’ 19.6%, 한방의료 기관은 낮은 선호율을 보였고 연령대별로 선호의료 기간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70대 이상에서는 ‘보건소’ 45.4%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한방 치료 선호 기관은 47.5%가 ‘한의원’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고, ‘한방병원’ 23.7%, ‘보건소’ 17.1%, ‘한약방’ 1.4%, ‘한약국’ 1.3%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의원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았으며, 한방 치료 경험은 ‘침, 뜸’ 50.1%, ‘한약제제’ 33.9%순으로 조사되어 전통적인 한방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방으로 치료 했던 질환을 살펴보면 ‘노인 퇴행성 질환’ 39.6%, ‘성인 질환’ 18.3%, ‘여성 질환’ 10.3%로 노년층에 꾸준한 치료를 위하여 ‘노인 퇴행성 질환’의 비율이 높았다. 한방치료 질환 관심도 ‘요통’ 23.7%, ‘중풍’ 12.8%, ‘고혈압’ 11.3%, ‘소화기’ 10.4% 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아산시 주민들의 한방 의료를 선택하는 동기와 배경 그리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방의료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근골격계 및 성인(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일수록 한방 의료서비스의 가능성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고 찰

과거 의료계는 공급자 주도의 시장에서 별 어려움 없이 성장하여 왔지만, 지금은 의료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에 대한 높은 기대와 고급화 성향 그리고 의학지식의

대중화와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른 의료 소비자들의 능동적인 역할 변화는 의료서비스에 있어서도 고객의 욕구와 선택이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⁴⁾.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나쁠 경우 병원은 더 이상의 환자확보나 병원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의료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 향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서비스 상품으로 인식함으로써 환자는 고객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⁵⁾.

의료서비스는 기술적인 질과 기능적인 질로 구분 되어진다⁶⁾. 기술적인 질은 진단과 처치의 적절성 또는 정확성을 말하며, 기능적인 질은 환자에게 서비스가 행해진 태도를 뜻한다. 환자는 의료서비스의 기술적인 질에 대하여 정확히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기능적인 질이 환자가 느끼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⁷⁾. 이것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는 그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다시 구매할 것인가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⁸⁾.

이상으로 볼 때 양질의 의료서비스란 환자들에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상의 의료 기술 서비스와 의료 기술 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료 소비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은 의료 소비자들이 평가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⁹⁾.

본 연구는 보다 효율적인 한방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지역 거주 주민의 한방 의료에 대한 인식과 경험 만족도 등의 문제를 총괄적으로 접근하여 지역 주민의 한방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환 분포 분석과 한방 선호도, 만족도를 포함하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산시는 11개

면과 6개 동으로 구성되어서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이 공존하는 곳이다. 따라서 한방적 수요조사를 하기에는 적합하며, 이와 같은 결과는 한방 의료 서비스 이용 시 경험한 만족도와 요구도를 파악하여 한방 의료서비스 방향 설정과 지역주민의 한방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향후 한방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초석이 될 것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9년도 아산시 보건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한의약건강증진 지역특화사업’의 ‘한의약건강증진지역특화사업 선정 연구용역’과제의 결과임.

참고문헌

1. 최용환.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선호행태에 관한 분석. 충북개발연구원. 12(2). 213-234. 2001.
2. 최윤정, 김장현. 일부 한방병원 내원자들의 소아 한방 치료에 대한 인식 및 이용에 관한 조사 연구. 한의정보학회지. 1(1):1-24. 1995.
3. 충청남도 아산시 통계 자료(2009. 8).
4. 조우현. 의료서비스 마케팅. 퇴설당. 1999.
5. 유승흡. 양질의 의료관리. 수문사. 1993.
6. Geoenroos, C. A. Service Quality model and Its Marketing Implication.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18, 4, 1984.
7. Donabedian. A. The Criteria and Standard of Quality. Health Administration press. 1982.
8. Zeithamal. V. A. Consumer Perceptions of price, Quality and Value. Journal of Marketing 1988.
9. 신종연, 윤병준, 김영훈, 이은표. 일부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만족도 및 요구도에 관한 조사. 한국보건통계학회지 25(2):61-72. 2000.

4) 조우현. 의료서비스 마케팅. 퇴설당. 1999

5) 유승흡. 양질의 의료관리. 수문사. 1993

6) Geoenroos, C. A. Service Quality model and Its Marketing Implication.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18, 4, 1984

7) Donabedian. A. The Criteria and Standard of Quality. Health Administration press. 1982

8) Zeithamal. V. A. Consumer Perceptions of price, Quality and Value. Journal of Marketing 1988

9) 신종연, 윤병준, 김영훈, 이은표. 일부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만족도 및 요구도에 관한 조사. 한국보건통계학회지 25(2) 61-72. 2000.